아이오닉 6, 전기차 틀을 깨다

현대차가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 6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라인업으로,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구성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 첫 세단형 모델 사전계약…가격 낮춰 전 모델 정부 보조금

1회 충전으로 524㎞ 주행·첨단기술 기본 적용·친환경 소재 활용

올해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꼽혔던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당초 공개했던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해 정부 보조금도 최대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는 22일 아이오닉 6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022 부산 국제모터쇼' 현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아이오닉 6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라인업이다. 기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위주였던 전기차의 이미지를 깬 첫 세단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아왔다.

아이오닉 6는 ▲6.2㎞/㎾h의 세계 최고 수준 전기소비효율(18인치 휠, 스탠다드 2WD 기준) ▲산업부 인증 기준 524㎞에 달하는 넉넉한 1회충전 주행가능거리(18인치 휠, 롱레인지 2WD 기준)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기저항계수 0.21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이오닉 6는 53.0㎾h 배터리가 장착된 스탠다드(기본형)와 77.4㎾h 배터리가 탑재된 롱레인지(항속형)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되며, 롱레인지는 74㎾ 전륜모터가 추가된 HTRAC(사륜구동)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HTRAC을 선택하면 최대 239㎾ 출력과 605Nm 토크를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h까지 단 5.1초만에 주파하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합리적인 가격 구성을 통해 구매 고객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가 5200만원으로 롱레인지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5605만원, 익스클루시브+(플러스) 5845만원, 프레스티지 6135만원, E-LITE 2WD 5260만원이다.

현행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의 기본가격 5500만원 미만이면 100% 지급된다는 점에서 최하위 트림이 5200만원인 아이오닉 6는 전체 차종 모두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현대차는 아이오닉 6에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되는 'EV 성능 튜업' 기술과 현대차 최초로 주요 전자제어장치까지 범위를 확대한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해 '실내 V2L',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 보행자, 자전거탑승자, 교차로대향차),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배터리 히팅 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 등을 기본사양으로 적용했다.

이어 현대차 최초로 ▲듀얼 컬러 앰비언트 무드 램프(속도 연동 기능 포함)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e-ASD)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지능형 헤드램프(IFS)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 등 기능이 탑재됐다.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와 '디지털 사이드 미러' 및 '일체형 대시보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20인치 휠&피렐리 타이어' 등도 선택사양으로 운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명이 다한 폐타이어 재활용 도료와 식물성 원료를 도료를 사용한 내·외장 도색, 친환경 공정으로 가공된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을 사용한 시트, 폐어망 재활용 원사로 제작한 카펫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것도 특징 요소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는 유선형의 스트림라인 실루엣을 기반으로 달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와 현대차 최초로 탑재되는 다양한 기능을 앞세워 전동화 시대의 한 차원 높은 이동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Inside Genesis '적을수록 좋다'

제네시스 전기차 콘셉트카 '엑스 스피디움 쿠페' 내장 공개

제네시스가 전기차 콘셉트카 '엑스 스피디움 쿠페'의 내장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다.

22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골프링크스에서 개최된 '페블비치 콩쿠르 델레강스'에서 전기차 엑스 스피디움 쿠페를 전시했다.

올해 71회째를 맞은 페블비치 콩쿠르 델레강스는 매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자동차 관련 축제인 '몬터레이 카 위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로 클래식카, 콘셉트카, 신차 등이 전시된다.

제네시스는 운전자 중심 설계와 '적을수록 좋다'(Less is More)는 디자인 원칙을 바탕으로 여백의 미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엑스 스피디움 쿠페의 '칵핏'(운전석)은 조작계와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곡선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배치됐으며, 운전자의 영역을 나머지 영역과 명확하게 구분해 운전 집중도를 높인 게 특징으로 꼽힌다.

동승석은 북부 캘리포니아 해안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색상인 '몬터레이 골드'(Monterey Gold)가 적용돼 운전석과 대비를 이루고, 엑스 스피디움 쿠페의 트렁크 내부에는 엑스(X)자 형태의 스트랩이 적용돼 적재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시트를 비롯한 실내 곳곳에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가죽이 사용됐다. 가죽 내장재에는 감귤류 열매 같은 식물유래 성분으로 가공한 '베지터블 가죽'과 가공 과정에서 일반 가죽에 비해 적은 양의 물과 화학 약품을 사용한 '그레인 가죽' 등이 활용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

기아, 장애인 가정 수해 차량 정비 지원

기아는 사회공헌사업 '초록여행'을 통해 장애인 가정을 위한 수해 차량 정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비 지원은 집중 호우로 차량에 피해를 입어 이동 및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는 장애인 가정의 소득, 장애 유형 및 정도, 보유 차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50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가정에게는 차량 수리 시 최대 100만원의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수리 불가한 차량을 폐차한 후 기아 신차를 구매할 시 핸드 컨트롤러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애인 가정 대상 특별 지원은 본인 명의의 차량에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라면 보유 차량의 브랜드와 상관없이 이날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초록여행 홈페이지(www.greentrip.kr) 내 접수방법 안내를 참조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14일 개별 통보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2년 연속 우승 지난 18일부터 21일(현지 시각)까지 벨기에 서부 이프르(Ypres)에서 열린 '2022 월드랠리챔피언십'(WRC) 시즌 아홉 번째 대회에서 현대자동차 월드랠리팀 소속 '오트 타낙'(Ott Tanak)이 1위를 기록,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오트 타낙이 우승을 확정 짓고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렉서스 '커넥트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선정

렉서스코리아는 렉서스 복합문화공간 '커넥트투'(CONNECT TO)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3단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진로 체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렉서스 커넥트투는 지난 2019년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 진로 탐색 오프라인 프로그램인 현장 직업 체험 '청소년 진로 체험의 기적'과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진로데이'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직업멘토 잡다한 이야기'와 '직업메뉴판'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송파구 지역 내 32개 중·고등학교 학생 약 16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재선정돼 2025년까지 3년간 인증기관으로 활동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커넥트투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강의와 고객 서비스 체험 실습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청소년 진로설계 역량강화 지원을 포함해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양양 서피비치서 'N 브랜드' 체험하세요

현대차 27일까지

현대차가 N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름 행사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22일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서피비치에서 N 브랜드를 체험하고 시승할 수 있는 'N 비치(beach)' 행사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양 서피비치는 국내 대표 여행지로 현대차는 행사 기간동안 서피비치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N 브랜드 직간접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어린이날 서울 성수동 '피치스(Peaches) 도원'에서 진행했던 'ChildreN's Day'에 이어 인기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행사로 고성능차의 매력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N 비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코나N, 서핑보드, 망루의자와 함께 서피비치 콘셉트에 맞는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N 비치 포토존' ▲NGS 버튼을 누르면 코나N 배기구에서 N 배기음과 함께 강력한 물을 맞을 수 있는 대형 샤워부스 'NGS 샤워' ▲선셋바 내부 거울 셀피존과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 'N 비치 라운지' 등 N 브랜드를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N 부스팅 치즈버거, N 퍼포먼스 블루 에이드 등 N 비치 전용 음식을 판매하는 'N 비치 F&B' ▲N 비치 곳곳에 숨겨져 있는 N맨의 흔적(헬멧, 신발 등)을 찾아 인증사진을 찍는 미션수행형 SNS 이벤트 'N맨을 찾아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아반떼N, 코나N을 타고 N의 성능을 체험하며 양양의 주요 관광지로 갈 수 있는 'N 익스프레스' ▲N 브랜드의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담은 DJ파티 'N맨의 애프터파티' 등 이벤트도 마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N 비치를 통해 N 브랜드의 메시지가 MZ세대 고객들에게 재미있게 전달되고, 고성능차의 즐거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고객들이 고성능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